



조경해외 기술연수를 마치고



박 정 기

한국조경수협회 경남중부지부 사무국장

1. 연수단 구성과 연수일정에 따라 현지를 돌아보고 나서

우리 조경수 협회에서는 금년도 우수모범농장으로 표창을 받은 회원을 위시하여 32명의 회원들이 산림청의 일부 보조를 받아 동남아의 이웃 국가인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2006. 6. 8~13(6일간) 연수하면서 해당국가의 도시숲과 조경시설을 살펴보고 회원들간의 친목과 기술 정보 교류등을 통한 값지고 알찬 해외연수와 여가공간을 갖고 현지에서 보고, 느끼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즐거운 연수를 마치고 간략한 소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2 연수국가 선정배경 및 연수목적

▶베트남

*면적이 넓고 물이 풍부하며 비옥한 국토를 가지고 전인구의 70%가 산업활동에 참가하는 성

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종전이후 사회안정을 계기로 발전을 거듭, 산업 규모 확대와 천혜의 관광자원 개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인적·물적교류가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베트남 자연과 조경을 볼 필요성.

*중국 가까이 있고 한때 그 지배하에 있었으며 근세기에는 프랑스 식민지였던 까닭에 베트남은 동·서양 조경 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최적 국가.

*최근 아시아 경제성장의 축으로서 개발붐에 있는 신시가지, 공동주택지구 등 조경현상을 봄으로서 베트남 경제와 조경의 성장가능성 확인.

*‘물의 도시’라 불리는 수도 하노이市 자연발생 호수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롱베이 등 자연발생 공원의 이용실태와 우리나라 비교·적용 가능성 검토.

*지구온난화 현상에 의하여 남부수종의 북방한계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베트남 북부 지역 아열대 조경수목의 성상·생태·효용·식생조건·재배기술 등 수목학적 접근.

*그 밖의 베트남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

▶캄보디아

*선진 기술과 자본이 도입된 앙코르유적지와 그

주변 발전상(특히 조경분야)을 봄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가장 적합한 국가.

*열대성 기후와 국민소득이 낮은 후진국 수목과 조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

*도로·공항·공원·호텔 등 근래 조성한 SOC 및 다중이용시설물 조경 현상 견학.

*캄보디아 산림·평원·호수 등 자연조건, 고유한 조경양식, 수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성 검토.

*동양권(불교문화권)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한국조경업계 또는 한국식 조경양식의 진출 가능성 타진

*미국의 센트랄파크를 본보기로 1980년대부터 유럽자본으로 조성한 씨엔립시 그랜드파크(Grand park) 조경 수준 파악.

*그 밖의 캄보디아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

경작품이었다. 천혜의 관광자원에 인간의 손은 배제하되 접근성 이용편의성을 쫓아 모래사장 조성, 전망대 설치, 동굴탐방로, 선착장, 매대(賣臺) 등을 조성하였으나 경관을 훼손하지 않았다.

하노이시내에는 동다, 장보, 남동, 탄콩, 바이마우, 응압칸, 호암키엠 등 호수(Lake)가 많고 주변은 수목으로 둘러싸여 도시의 허파 역할과 심터를 제공한다. 수목의 형태는 자연임목 수림대(숲)이고 산책로는 있되 간간이 벤취만 있을 뿐 여타 시설물은 보이지 않았다.

3. 연수국가별 조경 현상

○ 관심있게 본 사항

▶ 베트남

1) 자연발생 공원

베트남은 남북으로 긴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 연수목적지로 정한 수도 하노이시는 북부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제주도 여름기온과 크게 차이하지 않으며 지리적 조건에 기인한 아름답고 생태환경면에서 중요한 자연발생 공원이 산재하고 있으며 잔잔한 바다위에 수천개의 섬으로 이어진 하롱베이 일원은 '자연은 가장 훌륭한 조경기술자' 라는 말처럼 완벽한 조



▲ 박물관에 이르는 공원구역의 원추형·자연수형 수목 열식, 관목 테두리잡기·벽돌치장 구획, 서양식 설계를 바탕으로 둔 자국 국가체제 특유의 秩序美學을 발견할 수 있다.



▲ 유럽스타일을 쫓아 디자인과 배색을 중시한 구역





▲ 태호석은 중국풍. 관목을 배색과 디자인을 고려하여 식재한 것은 유럽풍이다.

2) 도심 테마 조경

호치민유적지 국가공원은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하며 프랑스 식민지시대 총독부가 있었던 곳으로 조경개념으로 조성·관리되어 온 베트남 대표 공원이다. 중요건물을 연결하는 원로(園路)와 중앙호수를 따라 아름다리 교목이 하늘을 덮었고 넓은 구역은 여백을 두고 자연배식을 하여 전체적으로 여유로움을 강조하였다.

박물관 주변은 유럽식 디자인을 중시하여 원주형 수목 열식(列植)과 관목·초화·지피(잔디)위주로 식재하여 조망을 확보하였다.

3) 시가지 조경

구시가지·신시가지·시외곽도로 등 모든 도로에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1980년대 이후 본격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형은 층층나무 혹은 후박나무와 흡사하며 수음(樹陰)을 중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3차선 이상 도로에 중앙분리대 대신 수목을 식재 조경을 한 것은 프랑스 영향이다. 시내중심부 넓은 도로 가로수는 참나무 수형과 같은 큰키(樹高)형태로 관리하고 있었다.

4) 다중이용시설 조경

공항, 호텔, 관공서,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야자나무를 비롯한 자국수종을 식재하고 중국식 정자와 연못이 있고 배색(配色)을 위주한 관목·관엽·초화 화단이 많다. 타원형연못, 태호석 설치, 분재분 배치도 가끔 볼 수 있다.

5) 주택 조경

공동주택 단지내 조경면적은 넓지 않으나 단지밖 주변 도로에 가로수형태로 집중 식재하였다. 민가에는 풍수지리 속설 때문인지 야자나무와 ‘짜우까우(Trau cau)’라는 향토주종을 집뒤와 앞에 식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귀자귀한 주택조경은 볼 수 없으며 시외곽 고급주택은 지중해 별장스타일로 열대교목을 위주로 미학적(美學的)으로 배식하였다.

6) 조경수목

야자류, 금굴 재배포지 산재·가로수 수종 교목 재배외에는 관목 재배포지는 볼 수 없었음. 자귀나무·유도화가 많고 대형 화분에 심겨진 벤자민은



▲ 원로는 다소 넓게, 선형은 자유롭게. 바닥포장과 측구기능성을 쫓아 현대식으로 조성.



▲ 도시계획으로 최근에 조성한 광로 중앙부에 10여미터 폭의 조경구역을 둔것은 프랑스 도로를 본보기로 한 것임.

인기수종. 둥근형·원추형 수목은 보이나 형상수(Topary)·조형수목·칩엽수종은 선호하지 않는지 찾기 힘들.

△요점

하노이시내 인도(人道)중앙에 큰 교목이 온전하게 자라고 있고 꽃집이 의외로 많으며 꽃과 화분을 배달하는 광경이 자주 볼 수 있기에 베트남 사람들은 꽃과 나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종은 다양하지 않고 여름에 짙은 적색, 황색 꽃이 피면서 수관폭이 넓은 교목을 선호한다. 조경양식은 유럽식과 동양식이 혼재하며 전반적 조경 수준은 상상외로 높은 편이다.



▲ 수업총을 만든 분재 수형. 둥근형·사각형·육각형 화분모양도 각각.



▲ 연못주변 포장구역에는 대형 분재분 배치가 일반적임.



▲ 교목(성목)이 부족한지, 예산이 부족한지 일부 구간은 관목과 잔디부터 식재하였다.

▶캄보디아

1) 산림녹화 실적

국토의 3/4이 산림. 앙코르유적지 주변은 개발로 인해 황폐화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산림보호정책 및 1980년대 후반부터 식재. 현재는 산림지역·유적지·도로·도시구역에 걸맞는 녹화현상을 보이고 있음. 평지형 열대림이나 덩굴수목은 더물고 대규모 교목들이 적정한 입목밀도 유지 양호한 식생.

2) 유적지주변 조경

앙코르유적지 일대는 발견·복원당시부터 유적지가 드러나도록 수목을 정리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주요지점마다 계획식재를 하였으며 시내에서 유적지 가는 길 옆으로 10~20년전에 조경개념이 아니라 산림복원 차원에서 식재한 수림대를 볼 수 있었다. 앙코르와트 입구 도로, 호수 주변은 오래전에 조성한 자연공원으로 가족단위 나들이 인파가 많다. 수목은 현지 산림수종으로 적당한 밀도로 산식(散植)하여 '조경=숲조성' 개념으로 기교나 디자인을 철저히 배제하였다.

3) 도심 테마 조경

서양자본으로 지어진 씨엔립市 호텔·학교·병원 주변에 유럽식 조경구역이 있고 그 중 그랜드파크(Grand park)는 면적이 가장 큰 공원으로서 아름답





▲ 그랜드파크 전경. 단순하지만 품격은 결코 낮지 않다.



▲ 센트럴파크 전경. 초본식재 구역 뒤에 벤치가 있다.

리 교목과 산책로, 관목디자인인 배식, 배색(配色)을 중시한 관엽, 초화화단도 조성하였으며 넓은 잔디 구역과 조형물·벤취 설치 등 유럽 조경의 진수를 엿볼 수 있을만큼 완성도가 높았다. 대규모 교목 주간(主幹)에 덩굴관엽을 착생시킨 것이 인상적이었고 관수시설을 갖추었고 전정 등 관리상태도 양호하였다.

4) 시가지 조경

시가지 가로변에 야자류와 자연수형의 교목을 식재하고 근래조성한 도로에도 외소한 규격이지만 반드시 가로수를 식재하였다. 도로가 넓지 않지 때

문에 베트남 처럼 도로중앙 조경구역은 없었다. 특징있는 조경은 찾을 수 없었고 우리나라 1950~1960년대 수준으로 조경 도입시기로 보인다. 다만 수준 높은 석재 첨경물(添景物)은 많았다.

5) 다중이용시설 조경

공항은 그 규모도 초라하지만 주변 조경도 야자나무, 대나무 몇그루 식재한 것이 고작이다. 다만 최근에 건립한 호텔은 완성도가 높은 조경이 되어 있었다. 앙코르조형물을 주요지점에 설치하고 수형이 우수한 현지 수목을 식재하고 공(球型), 잔(蓋型) 모양으로 다듬은 토피 어리도 있었고 관목과 초화류 배식도 한층 고급스러웠다. 대지경계선에 대나무, 야자류 차폐열식은 일반적이다. 교목 근경부 관목처리, 식재여백에 잔디처리 등 관목·관엽·지피연출 수준도 우수하였다. 조경양식은 유럽식과 중국식이 혼재하되 일본 양식도 가끔 볼 수 있었다.

6) 조경수목

야자류, 버드나무류, 대나무, 수직형교목이 주류이고 베트남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수관폭이 넓은 수목은 더물다. 여름에 꽃이 피는 부겐베리아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현지 인기 수종이다. 소철·문주란·몬스테라 등 관엽식물도 많이 이용한다.

시엔립시 6번도로변에 소교목, 관목, 화목류를 재배·판매하는 크지 않은 수목원 몇 군데가 있었다. 수목의 성장 속도가 빠르며 병해피해수목은 없었다. 수목생산량이 도시발전을 따라가지 못하여 식재할 성목이 부족하였다. 일반국민들은 꽃과 열

매(먹을 수 있는)가 있는 수목을 생활주변에 둔다.

△요점

캄보디아 조경은 앙코르유적지 개발에 따라 서양식 조경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산림 녹화 가로수식재 등 초기단계에 있으나 유적지 주변, 시내 중심공원, 호텔조경은 각 위치별 적절한 조경이되어 있었고 특히 그랜트파크 공원과 각급 호텔조경은 고급스러웠다. 결국 외국 자본과 기술에 의한 캄보디아 조경현상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수작(秀作)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배워야할 정도였다. 전반적으로는 베트남에 비하여 조경수준이 낮으나 국가·사회 체제안정과 더불어 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므로 전망은 매우 밝다.



▲ 외국계 자본으로 지은 호텔. 출입구 花冠장식과 佛像, 그리고 盞形의 토피어리 수목



▲ 건물과 접하고 대지경계를 이루는 좁은 구역은 대나무, 야자류로 차폐 열식이 일반적임.

4 연수 소견

① 우리나라와 비교·적용 가능성

- *베트남 캄보디아에는 침엽수, 낙엽교목이 더운 것이 당연한 현상이나 겨울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우리나라도 성장이 빠르고 식재 이후 관리면에서 유리한 상록교목이 주류인 남부수종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 *유럽식 조경스타일은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이다.
- *조경수목, 분재수목, 지피초화, 관엽, 첨경물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조경 기법은 본받을만하다.
- *프랑스 영향으로 중앙화단을 넓게 조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심권 신도시 도로개설시 적용가

능하다.

- *여름에 개화하는 교목이 경쟁력 있는 수목이므로 개발 보급이 절실하다.
- *도심에는 테마 조경 보다 자연림에 가까운 수림대(숲) 조성이 유리하다.
- *시설물 위주로 복잡다양한 우리나라 테마조경은 수목을 위주로한 두 나라 조경보다 공사 비용면에서 불리하다.
- *동양과 서양, 자국양식 등 다양한 조경 양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 *조경은 관련산업 (예:관광·서비스)과 연계하여 생산성 있는 산업(돈이 되는)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연수대상국가는 성목이 부족하며 재배·식재 기술, 조경시설물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지 않다.
- *분재외에는 전정을 요하거나 토피어리수형 수목이 없으므로 우리도 조형수목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 *병충해 피해나 병증이 보이는 수목을 볼 수 없었으므로 우리도 내병성(耐病性) 수목 보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연수대상국가는 조경수목을 소품종 다량생산을 하고 있었으며 우리도 지역별 생산자별로 적용하는 것이 생산성면에서 유리하리라고 본다.

5. 조경외적 소견

㉠ 연수여행중에 느낀점

▶공통사항

- *베트남·캄보디아는 우리나라보다 덥고 습하며 우기(雨期)가 많아 사람들의 활동과 산업생산성에 불리하다 할 것이나 한편, 그러한 자연 조건은 나름의 산업과 관광자원이 되며 따라서 기후와 풍토는 국가 경쟁력에 결정적 변수는 아니다.
- *두 나라 국민들은 긍정적이며 낙천적인 사고를 지녔으며 현실에 순응하며 정치체제에 관심과 표현(행동)에 있어서 소극적이다.
- *관광소득 비중이 높은 국가이며 치안질서도 비교적 양호하며 외국인과 외국자본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 *우리나라와 달리 비봉분형 장묘문화가 오래전에 자리잡았다.
- *물가는 쌀 편이나 외국인 및 관광객에게 판매·용역 댓가는 꽤 비싸고 가격질서도 엉망이며 이는 현지 여행사 농간에 기인한 면도 있다.
-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호감은 보통 이상이다.(베트남에서도 월남전 영향으로 인한 특별한

- 반감을 표하는 현지인은 없었음)
- *대중교통 체계가 미흡하고 중고자동차 시장은 활발하며 오토바이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열대성 기후로 인하여 농민·근로자는 정오 전후 긴 휴식시간을 가진다.
- *전력사정이 좋지 않아 종종 정전(停電)이 발생한다.
- *우리나라에 비하여 조혼(早婚)이 일반적이다.
- *남녀평등의식과 모계사회 풍습이 존재한다.
- *불교나라임에도 사찰이나 승려가 많지 않다.

▶베트남

- *양성평등의식이 강하고 여성 대부분이 산업활동에 참여한다.
-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 분야는 아직도 많다.
 -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外 외식·관광·기타 서비스업, IT, 가전, OA업종도 유망.
- *눈부신 경제성장 베트남은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다
- *故호치민주석에 대한 국민들의 추앙(推仰)이 대단하다.
- *관광객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불교권 외국인이 주류를 이룬다.
- *건물의 형태가 유럽식이 많고 단독택지를 가로 4m, 세로 10m로 획정하여 건물 양 측면이 벽으로 된 모습이 특이하였다.
- *출퇴근 시간 오토바이 행렬은 장관이다.

▶캄보디아

- *킬링필드에 살아 남은 사람들 얼굴에 상흔은 없다.
 - 전쟁과 내전, 피의 갈등을 겪은 나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 *앙코르유적의 규모, 예술성, 역사적·문화적 가치는 로마유적에 뒤지지 않는다.
- *후진국 명예를 벗기엔 아직 요원하다.
 - 산업구조 낙후성, 공고하지 못한 정치·행정



체계, 부조리 만연, 절대빈곤층.

- *신랑이 신부(댁)에 결혼지참금을 지불하는 독특한 결혼풍습이 있다.
- *관광자원의 개발과 이용수익에 대한 외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 *관광·답사·연수 관련 기반시설(Infra)이 부족하다.
- *출입국절차, 사업인허가 등에 인맥과 급행료 관행이 있다.
- *태국식 사원형태의 다중이용시설(건물)이 자주 보인다.
- *회화벌이 수단으로 북한식당이 진출 성업중이다.
- *현지 특산품 상황버섯, 보석(원석)을 관광객에게 팔고 있다.
- *수상가옥 열악한 생활환경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였다.
- *문맹율이 높고 교육여건이 열악하다.

6 연수후기

학교에서 배우고 메스컴을 통하여 나름대로 잘 안다고 생각해왔던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조경선진지로 명명하고 관광목적이 아닌 기술연수를 간다 하니 처음엔 의아해 했으나 관련서적과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까지의 선입감은 오류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막상 현지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느낀 지금, 위 두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상과 더불어 조경 수준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할 것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폭넓은 식견(識見)을 가지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결혼 16년만에 아내와 첫 해외나들이 기회를 가져 고생은 하였으며 유익했고 평생 추억에 남을 것이며 연수일정중 전국 지방에서 참가한 일행들과의 친목다짐과 정보교환 역시 뜻 깊은 시간이였다. 앞으로도 해외기술연수에 꼭 참석하여 내 자신과 협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7 협회, 산림청, 여행사에 드리는 말씀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고정관념을 탈피, 가장 적합한 연수국가를 선정하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체계적인 진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협회 임원진께 감사드리며 특히 현지에서 코스를 변경해가면서까지 [연수목적100% 달성]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해마다 해외기술연수에 지원을 해 주시고 올해는 주무과장님께서 참가하여 주심으로서 더욱 유익하고 알찬 연수가 되는데 대하여 산림청관계관님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볼거리 먹거리 쇼핑을 주요한 외유성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해외기술연수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원활한 행사를 위하여 전문가이드 선정 등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알프스여행사 사장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8 아쉬운 점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었으나 있다고 하면, 지방 거주 회원들의 시간과 경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수경비 차등화 혹은 출발지 이원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과 일정이 다소 짧은감이 있으니 10일 정도로 확대하고 본 경비 중 50%를 산림청과 협회에서 지원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 결 론

베트남과 캄보디아 자연과 조경을 보고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조경기술 발전을 기하는 유익한 연수를 하였으며, 우리 연수일행은 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조경산업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연수를 위해 도와주시고 안내해주신 산림청과 우리 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임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